

2018/3/24 서울시 9급 A형 국어 해설

유두선 교수

1. ② 복자음은 음절 끝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갑]으로 발음된다. 즉 ‘ㅅ’이 발음되지 않고 탈락된다.

<오답풀이>

- ①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부착어)에 해당한다.
③ 통사적 특징에서 주어 목적어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
④ 대가족 사회의 영향으로 가족 호칭어가 발달되어 있다. ‘uncle’을 우리는 삼촌, 외삼촌, 백부, 숙부, 고모부, 이모부, 아저씨등으로 부른다.

정답 ②

※ 적중 2018 선국어 1권 52쪽 25번 문제

25. 다음 중 국어의 통사적 특징은?

- ① 우리말에서는 조사와 주어의 생략이 잦다.
②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에는 단어에서 성과 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④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와 지칭어가 발달되어 있다.

2. ① Jongno로 표기한다

정답 ①

3. ② 맞히다 : 물음에 옳은 답을 하다

맞추다 : 서로 꼭 맞도록 하다, 서로 마주대다, 물건을 만드는 일을 부
탁하다

여기서는 ‘맞춰’로 써야 한다.

정답 ②

※ 적중 2018 선국어 3권 261쪽

4. ③ 장괴판늘(흔칠표기) 장괴파늘(이어적기), 링글어늘(끓어적기) 링글러늘(이어적기)

<오답풀이>

① 기픈(깊은) ② 브르매(브름애) ④ 바르래(바를애)

정답 ③

5. (나)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왼쪽부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그려야 손이 편하고 물감이 묻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했다. 따라서 ㉔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그린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정답 ③

6. ① 입과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지 안위를 걱정하는 것과 관계없다.

<오답풀이>

② 밤을 베어내서 편다는 표현. ③ ‘서리서리’, ‘구비구비’는 의태어
④ 사랑하는 임이 온다는 것은 화자의 소망

정답 ①

※ 적중 2018 선국어 2권 76쪽

7. ④ ‘적’은 의존명사로 지나간 어떤 때를 뜻하는 고유어이다.

<오답풀이>

① 모골(毛骨), 송연(悚然) ② 도대체(都大體) ③ 매사(每事)

정답 ④

8. ① ‘봄꽃’에 호응하는 서술어는 ‘피어난다’이다.

<오답풀이>

②, ④로 착각하기 쉽다 ‘의’는 모호성이 있다. ‘서울이 아름답다’, ‘서울의 공원이 아름답다’가 모두 가능하다.

③ ‘과’는 접속조사이므로 아름다운은 나무와도 호응한다.

정답 ①

9. ② 주어진 보기는 어떤 집합 원소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데서 범하는 흑백논리의 오류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③ 순환논증의 오류 ④ 애매어의 오류

정답 ②

10. ④ 이근삼<원고지>는 ‘부조리극’으로 전통적 플롯을 거부하고 허구적 과장, 희극적 형상화 등의 기법으로 인간의 부조리한 상황을 드러내는 형식이다.

정답 ④

※ 적중 2018 선국어 2권 263쪽 문제.

11. ③ ‘빈 것은’이 시간 개념이므로 서술어 ‘때였다’와 바르게 호응

<오답풀이>

① ‘왜냐하면’과 호응하기 위해 ‘이루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까닭’과 호응하기 위해 ‘합격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양쪽 구조가 같아야 한다. ‘관심을 갖고’로 고쳐야 한다.

정답 ③

※ 적중 2018 선국어 모의고사 5차

14.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겨울에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야 내년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교관의 명령에 따라 조교가 총검술 시범을 보였다.
- ③ 이번 정책은 교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④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지만 안동시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12. 주어진 글의 끝에 「명종실록」의 기록에 재상이 청렴하지 못해 수령들의 가림주구가 심했다고 했으니 백성들은 당연히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다는 내용이 와야 한다.

정답 ④

13. ① ‘-하다’가 붙어 형용사로 파생되는 것은 예뻐하다, 슬파하다 등이 있다.

<오답풀이>

② ‘시누이’는 접두사가 붙은 파생명사이다.

③ ‘빋-’은 접두사 ‘-하다’는 접미사 이므로 파생어

④ ‘한-’은 접두사이므로 파생어

정답 ①

14. 점층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전호후랑(前虎後狼)은 ‘앞에는 호랑이 뒤는 이리’라는 의미로 밀줄친 부분과 가장 어울린다.

<오답풀이>

① 권토중래 : 어떤 일에 실패한 뒤 힘을 쌓아 다시 그 일에 착수함.

② 연목구어 :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할수 없는 일

④ 천의무봉 : 바느질 흔적이 없는 하늘의 옷, 완벽한 솜씨를 가르킬때 하는 말.

정답 ③

※ 적중 2018 선국어 모의고사 18차

13. 다음 작품에 나타난 미의식으로 적절한 것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 가운데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충도 근코 돛대도 짓고 치도
색지고, 바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
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쁜디 四面이 거머

어둡 저뭇 天地寂寞 가치 노을 씻는디 水賊만난
 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헐리오.

- ① 우아미 ② 골계미
 ③ 비장미 ④ 숭고미

16. 다음 중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 ① 百年河清(백년하청) ② 上山求魚(상산구어)
 ③ 緣木求魚(연목구어) ④ 天衣無縫(천의무봉)

15. ② 현실 문제 해결에는 이론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즉, 이론이 없이는 경험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정답 ②

16. ② 어간은 실질형태소이면서 어미와 함께 있어야하므로 의존형태소이다.

정답 ②

17. ㄱ. 결제 ㄴ. 화장 ㄷ. 모사

정답 ④

18. ④ ‘겸’은 의존명사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야 함을 나타내는 말.

<오답풀이>

- ① ‘편하다’를 수식하는 부사
 ②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③ ‘나은’을 수식하는 부사.

정답 ④

19.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정답 ①

※ 적중 2018 전국어 16차 모의고사

17. 다음과 유사한 서술자의 목소리가 나타난 것은?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것은 없으리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전치 못하고 심청이 같은 하늘이 낸 큰 효가 필경에는 인당수 물에 가련한 몸이 잠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잠긴 곳은 물 속이 아니라 이 인간계를 영 이별하고 간 하늘의 상계(上界)이니, 하느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이라. 이 욕에 눈이 어둔 인간계의 사람들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이를 돕지 못하였으나 인당수의 물귀신이야 심청이를 알아보지 못하리요?

- 심청전

20. 서술어를 찾아 ‘무엇을 누구를’에 호응하나를 찾아보자.

③ ‘않아’는 ‘건강하지가 않다’로 호응하는 주어

<오답풀이>

- ① 수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목적어)
- ② 불기를 기다렸다 (목적어)
- ④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목적어)

정답 ③

출제경향총평

문법 10문항, 독해·논리 5문항 문학 3문항 한자 2문항이 출제되었다. 기존의 서울시에서는 독해가 적었는데 2018년에는 지문이 짧긴 했지만 5문항이나 출제되었다. 이를 볼 때 6월 서울시 문제에서도 독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법은 다양하게 출제 되었고 문제도 아주 세련되었다. 어렵지는 않았고, 전영역에 걸쳐서 출제되었다. 서울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 문법의 원리를 철저히 정리해 두어야겠다.